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바탄주립대학교로 파견을 나왔지만 대학교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La Vista 라는 리조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클락 공항에서 1시간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지역명은 발랑가 시티입니다. 참고로 도시 자체가 금연구역이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업	수업은 9시 부터 시작하여 9:00~9:50, 10:00~10:50, 11:00~11:50, 1:00~1:50, 2:00~2:50, 3:00~3:50, 4:00~4:50 총 50분의 수업을 7번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4번의 그룹수업과 3번의 1대1 수업이 있습니다. 과제는 선생님이 따라 나눠는 편이며 크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은 대학에서 주는 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책 내용 뿐만 아니라 프리토킹을 통해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다들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실려 노력하며 항상 소통을 이어나가려 애를 씁니다.각 수업마다 다른 내용, 다른 선생님이다 보니 지루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Activity	Activity의 종류에는 금요일에 하는 것과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금요일에는 센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진행하며 서로 친해지기 위한 활동, 체육대회, 탤런트쇼등이 있습니다. 다같이 해야하는 활동이기에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일요일날은 싱라탈라, 요트투어와 같은 외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7월 30일 부터 8월 18일 까지 중 첫째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오는 바람에 제대로된 활동을 쉽게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나머지 2주는 맑은 날씨에 활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우산은 필수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	발랑가 시티 자체는 위험한 곳이 크게 없습니다. 안전하게 다녀도 되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불이 다 꺼져있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골목은 안전등 조차 없는곳이 있어 살짝은 위험합니다.
숙소	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 숙소시설 자체는 좋은편은 아닙니다. 홈키트를 켜놓고 자도 벌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하며 살짝의 낡은 감이 있어서 조심히 사용 해주셔야 합니다.
식사	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기타(<input type="radio"/>) 아침과 점심은 센터내의 식당을 주로 이용하였고 음식은 상당히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나옵니다. 저녁은 주로 학교 친구들과 나가서 먹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	수업장소와 기숙사가 상당히 가까운곳에 있었기에 걸어서 10초면 도착하여 교통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다른 장소로 놀러 갈때에만 트라이시클이라는 필리핀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비	300,000	저녁마다 밖에서 먹은 음식
간식비	100,000	필요한 간식
생활용품	100,000	일회용품이나 화장품
교통비	50,000	교통비(트라이시클)
선물비	400,000	건망고나 술
합계	9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전에 비상약들을 조금 여유롭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서 물갈이나 아픈경우가 다수 있어서 이에 대비하여 약들을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하시고 특히 알레르기약, 설사약, 복통약, 타이레놀 정도는 조금더 여유롭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이 많이 타기 때문에 선크림도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중간에 헤어드라이기나 홈키트도 챙기시면 조금더 편안한 기숙사 생활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에어컨을 조금 강하게 트는 편이라서 긴 후드집업이다. 아우터를 한두개 정도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모기약 뿐만 아니라 모기 퇴치제등은 무조건 구비하셔야 모기로 인해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14명의 학생들과 같이 갔고 그중 2명이 남자이어서 조금 더 성비를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학우들끼리만 가는 경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도 한 팀당 한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것이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활동했던 것들 중에 재미가 없었던 활동은 따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다른학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다양한 인맥을 쌓아간것 같습니다. 첫날 했던 친해지기 게임과 그룹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친해졌기에 최근 들어서 가장 행복했었던 일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가지 정도 아쉬움이 남는것이 있다면 1번째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응원점수가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같이 하는 활동이니만큼 어느정도 응원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힘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회 점수로만 하기에 자신의 운동이 끝나면 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2번째는 3주만 운영했던 것입니다. 다른학교의 경우에는 4주의 운영시스템이지만 이번에 진행되었던 것은 3주만 운영을 하여서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를 못 가본것이 조금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열린결말로 끝난것이 가장 아쉬운 점인것 같습니다. 조금더 여유를 두고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지막 그룹 액티비티 사진



필리핀 현지식당 사진



체육대회 팀사진



그룹액티비티 사진



단체로 가제보에서 회식하는 사진



바탄대학에 견학갔을때 가서 했던 활동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정xx	학번	2023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바탄반도주립대학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 곳은 바탄반도주립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BPSU Global Center(이하 BGC)입니다. 센터는 리조트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서 숙소와 공부하는 곳이 모두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편했습니다.
수업	<p>첫 날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1:1 수업 교재의 레벨과 그룹 수업의 레벨이 나뉘게 됩니다. 레벨이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내용에 본인에게 쉽거나 어려우면 3일 이내로 변경 요청 가능하니 수업을 들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p> <p>하루에 수업은 총 7시간(50분 수업, 10분 휴식) 진행되며, 시간표는 그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1 수업은 하루에 총 3시간 하며, 리딩 책과 인터체인지 책을 수업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에는 총 14명이 가게 되어 3그룹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들었고, 저희 그룹은 5명이었습니다. 그룹 수업은 하루에 총 4시간 하며, 토익스피킹 2시간, 그룹회화 1시간, MMC 1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p> <p>첫 날 레벨 테스트와 함께 토익스피킹 시험을 보게 되며, 토익스피킹 수업을 다 듣고 난 후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봅니다. 첫 테스트 결과와 파이널 테스트를 나중에 성적표로 받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전 보다 나은 성적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Activity	<p>월요일-목요일: 정규수업 (화요일 오후: 평일 activity)</p> <p>금요일: Activity 프로그램 (수업 X, 다른 학교와 같이 함)</p> <p>토요일: 프리데이</p> <p>일요일: 주말 Activity</p> <p>- 첫 번째 주</p>

1. city 투어: 오후에 발랑가 시티 내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시티 투어였는데 비가 와서 차 안에서만 구경해야 했습니다. 시내를 한 번 정도 돈 후에 SM몰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값은 사비였습니다.
2. getting to know(화): 연수에 같이 온 다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TMI들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3. summer festival(금): 오전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총 9개의 부스를 전부 체험하면서 도장을 모아야 했습니다. 포토부스, 팔찌 만들기, 풍선 다트, 필리핀 사탕 만들기 등 부스가 다양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장기자랑을 했는데, 학교에서 최소 2팀이 나가야 한다고 해서 총 14명의 순천향대 학생을 7명씩 나누어 총 쳤습니다. 1등 3000페소, 2등 2000페소, 3등 1000페소 상금을 줬고, 순천향대 두 팀이 2등, 3등 했습니다. (한경국립대, 우송대와 같이 함)
4. Sinagtala(일): 차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산 위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리조트인데 실내 시설을 없습니다. 점심과 activity 체험 등의 비용은 모두 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스카이 스윙, झ라인, 스카이 브릿지 등 여러 activity를 할 수 있고, 이 때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게 있으면 사진 인화를 하고 메일로 파일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한 장 당 500페소입니다. 산 위에 있는 곳이라서 뷰가 매우 좋고 인생 사진 건지기 괜찮습니다만, 수영 후에 샤워를 하는 곳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냥 물기만 닦고 옷 갈아입은 후에 숙소와서 씻는 것 추천드립니다.

- 두 번째 주

1. BPSU Intercultural activity(화): 바탄반도주립대학에 실제로 가서 그 학교의 학생들과 문화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학생은 한국 단어를 뽑고 한국 학생은 필리핀 단어 뽑은 후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 학생 둘이 파트너가 되어 프로그램 내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데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사람들이 같은 조가 되어 그 분야에 대한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에 대해 서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문화들에 대해 발표도 했으며, 단어 맞추기 게임, 약간의 장기 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파트너를 잘 만난다면 좋은 필리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한경국립대와 같이 함)
2. Broom making(수): 빗자루 만들기 장인분들이 오셔서 빗자루를 만듭니다. 큰 빗자루와 미니 빗자루를 만듭니다. 전체를 다 만드는 건 아니고 매듭 부분을 만드는 거라 어렵지 않고, 옆에서 선생님들도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3. Sports day(금): 총 10명씩 4그룹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한경국립대 학생들과 섞여진 팀이 3팀이고 나머지 한 팀은 선생님 팀이었습니다. 종목은 배구, 배드민턴, 탁구, 다트, 피구를 했습니다. 배구는 야외에

	<p>서 했는데 햇빛에 매우 세니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상금이 있었는데 장기자랑과 같았습니다.</p> <p>4. Subic yacht tour(일): 수빅으로 요트투어를 갔는데, 차로 한시간쯤 걸렸습니다. 요트는 총 2시간 정도 탔는데, 요트 타고 어느 포인트에 멈춰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인생 사진 건지기 매우 좋습니다만,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트가 멈춰있는 동안 매우 꿀링 거리니 요트 타기 전에 멀미약 드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밝은 색 옷을 입는게 사진에 잘 나옵니다. 요트 멈춰 있는 동안 바다 수영 가능하고 스노클링 장비도 빌려주지만, 드라이기도 없고 샤워실도 하나라서 남자분 아니시면 수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트 투어 후에는 저녁 8시까지 자유시간이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때 사용하는 돈은 모두 사비입니다. 점심은 coco lime에서 먹었으며, 수빅에도 SM몰이 있어서 거기 구경하고, 해 질 때 짬 수빅베이 갔습니다. 수빅베이 가면 기념품 파는 곳들이 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살 것은 없어서 마그네티랑 키링 두 개 정도 샀습니다.</p> <p>- 세 번째 주</p> <p>1. Group Dynamic(화): 오후에 마지막 두시간 동안 getting to know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 하였습니다. 다들 친해진 후라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p> <p>2. Graduation & MMC festival(금): 3 그룹이 각자 다른 테일러 스위트 노래를 가지고 뮤직 비디오를 3주간 만들고 나서 공개하는 MMC festival을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만들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수료식을 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초반 며칠간 비가 좀 많이 왔지만 그 이후로 거의 날씨가 맑아서 밖에 나가기 좋았습니다. 햇빛이 나는 날씨임에도 비가 내리는 경우가 조금 있으니 가벼운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야외는 더우나 수업하는 공간, 근처 물 같은 곳은 에어컨을 많이 돌려 추운 경우가 많으니 가벼운 걸옷을 꼭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더워 잘 때도 에어컨을 켜고 자기도 합니다. 추위를 잘 타신다면 잘 때 입을 긴팔, 긴바지를 챙겨야 감기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	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맨 처음 입구에 계시는 경찰 같은 분들이 출입하는

	<p>사람들 전부를 체크하시기 때문에 매우 보안이 철저해서 이 부분은 안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학생들끼리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두 번째 입구에 관리인님께 ID카드를 내고 나가야 하며, 들어올 때 다시 찾아가는 시스템이어서 센터 내에서 어떤 학생이 외출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최소 2명 이상 같이 나가기로 정하였고, 외출을 하고 숙소로 들어올 때마다 순천향대 학생 단체 대화방에 보고를 하기로 하여 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습니다.</p>
<p>숙소</p>	<p>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숙소 시설은 많은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해서 괜찮았습니다. 다음날이 정규 수업이 있는 날이면 11시에 점호를 했고, 쉬는 날인 경우, 세탁 폼 받기,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탁은 일주일에 3번(화, 목, 토)였고, 세탁 물을 낼 때 어떤 세탁물을 냈는지 폼을 작성해서 같이 내놓아야 했습니다. 방 청소도 일주일에 세 번(세탁날과 같음)이었고, 학생들 물건은 만지지 않고 바닥청소와 간단한 화장실 청소 정도 해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귀중품은 잘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식사</p>	<p>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식당에서 거의 아침, 점심은 다 먹었고, 저녁은 자주 나가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은 항상 식사여부 투표를 하니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항상 다음날 메뉴를 알려주니 다음날 외출 계획을 짜기 좋습니다. 아침은 주로 다양한 샌드위치, 팬케이크 같은 것과 죽이나 스프가 나와서 가볍게 먹기에 좋았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한식 위주라서 생각보다는 한국 음식이 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분들 입맛이 짠편이라 몇몇 음식들이 좀 짤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센터 안에 숙소와 공부하는 곳이 전부 있어 숙소에서 나와서 1분이면 수업 들으러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 교통수단이 트라이시클이어서 밖에 나가려면 트라이시클을 이용해야 합니다. 트라이시클은 최대 3명이서 탈 수 있고, 오토바이 옆쪽 타는 곳에 2명 앉고 아저씨 뒤에 1명 앉아서 가면 딱 좋습니다. 센터 맨 처음 입구로 가면 거기 계시는 경찰 같은 분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는데 대답을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필요한 트라이시클 만큼 잡아주십니다. 보통 SM몰 갈 때 한 차에 80페소, 월터마트 40-50 정도 다른 곳도 그거 기준으로 해서 가까우면 깎으면 됩니다. 외지인이라고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가격 알고 있다고 하고 흥정하면 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용돈	406,510 (USD 300 조금넘계)	밖에 안나가면 돈은 쓸 일이 많이 없지만, 한 번 제대로 놀면 1000페소 언저리 쓰는 것 같아요. 한국 사가는 망고, 간식 등을 빼면 거의 1주에 100달러 정도 쓰는 것 같고 한국에 많이 사가실 예정이면 좀 일반 용돈 이외에 돈을 좀 넉넉하게 챙겨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계	406,510	

5. 출국 전 준비사항

짐은 최대한 가볍게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샴푸, 바디워시 등은 필리핀에서도 살 수 있으니 무겁게 들고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리고 갈 것들로 들고 오시면 나중에 캐리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옷 쇼핑을 하면서 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쁜 원피스는 찾기 어려우니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물을 많이 사가실 계획이라면 기내용 작은 캐리어 하나 비워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는 모기가 좀 있으니 뿌리는 모기퇴치 꼭 챙겨오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물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지사제 넉넉히 가져오시는 편이 좋고, 이외에도 본인에게 잘 맞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멀미약, 후시딘 등등 가져오시면 낫히 잘 쓰입니다. 요트 투어 때 생각보다 멀미가 심하니 멀미약 꼭 챙기시어 요트 투어 전에 드시길 바랍니다. 물갈이가 걱정되신다면 물은 생수를 사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밖의 식당에서 주시는 물과 얼음은 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햇빛이 강해서 물놀이를 하는 순간 피부가 많이 타기 때문에 편하게 놀 긴팔 수영복과 사진 찍을 이쁜 수영복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스피킹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테스트도 두 번 보기 때문에 미리 조금 공부를 해서 가면 아마 이해가 쉽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어학연수 오기전에 영어 말하는 연습을 좀 하다가 오시면 여기 와서도 바로 영어로 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 어학 연수 오기 전에 영어 회화 공부를 조금 하고 왔어야 했는데, 방학이라고 미루다가 그냥 와버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더 공부하고 왔더라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공부를 하고 오지 않았어도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항상 영어로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문법 같은 부분들을 신경 쓰느라 한참 동안 생각하고 말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고 당장의 대화를 이어 가야하니 문법에 맞지 않거나 조금은 어색한 단어를 쓰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거침없이 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던 것이고, 이전부터 고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학연수를 오기 위해 공인 어학 성적을 급하게 만드느라 토익스피킹을 3일 정도 준비하고 시험을 보았었습니다. 얼렁뚱땅 나온 성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마침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토익스피킹 수업을 하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토익스피킹 공부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공부를 한 후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서 이전에 봤던 시험보다 성적이 올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토익스피킹을 더 공부하여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 부분에서도 얻을게 많았지만 즐거운 추억과 좋은 인연들을 많이 얻어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3주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급격히 친해졌고,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아 필리핀 어학연수를 신청한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summer festival 날 장기자랑 무대</p>	<p>월터마트</p>



월터마트 안에 있는 망이나살(가게이름)
위- 음식이름 기억 안남/ 아래- 할로할로



시티홀 낮과 밤



유안스파 - 마사지샵



숙소 옆 퍼블릭 수영장



숙소 바로 앞 프라이빗 수영장



BPSU 학생들과 문화교류 날



숙소 앞 프라이빗 수영장과
바비큐파티 할 수 있는 공용야외 공간



MMC 그룹 멤버들과
MMC 담당 선생님과 저녁식사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위치는 필리핀에서 시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 나름 큰 쇼핑몰도 있고, 트라이시클을 타고 조금만 가면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숙소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기대하지 말라고 하셔서 기대 안 하고 갔더니 그럭저럭 지낼 만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곳의 시설도 안 좋았습니다. 식당 옆에 칸막이로 가려놓은 곳에서 수업합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눈이 아팠습니다. 필리핀 선생님들이 밝고 친절하셔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날에 토익스피킹 테스트를 봤습니다. 그 후 레벨에 따라 나눈 그룹수업과 일대일 수업을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p> <p>그룹 수업에서는 토익스피킹과 대화 위주의 수업, 영상 제작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일대일 수업은 읽기와 대화 위주로 수업했습니다.</p> <p>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매주 금요일은 액티비티가 있는 날로 정규 수업이 없었습니다.</p> <p>날씨 관계로 마닐라 투어 대신 썸머페스티벌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운동회를 하였습니다.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정규수업을 오전만 하고 오후에 근처 대학에 간다든가, 전통 빗자루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뭔가 준비가 허술해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p> <p>또한 매주 일요일은 차를 타고 시냇탈라라는 곳을 가고 요트투어도 했습니다. 시냇탈라라는 곳에서 액티비티(ex.짚라인)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에서 여름일 때 필리핀은 우기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첫째 주에는 매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둘째 주부터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에어컨이 생각했던 것보다 추웠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다들 친절해서 딱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p>
숙소	<p>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는 기대 안 하고 가면 실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빨래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지낼 만합니다. 생각보다 별레도 별로 없었습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국 맛집입니다. 가끔 간이 짝지만, 전반적으로 맛있습니다. 그냥 한국 학교 급식입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트라이시클을 많이 탔습니다.</p> <p>미리 선생님들께 얼마 정도 내면 적당한지 듣고 타서 바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400달러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필리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웬만한 건 필리핀에도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사세요. 너무 이것저것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 공부만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지원하려한 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간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 영어 실력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지원하세요. 모든 활동이 즐겁지는 않았지만 지나 보니 추억입니다.

마지막 주에 많은 친구가 배탈이 많이 났는데 아마 물갈이가 원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는 심하게 아파 현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았습니다. 다행히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 금방 나았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아프다면 현지 병원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트에서 물을 사서 하루마다 새 물병으로 드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자유시간



주말 액티비티 - 요트 투어



자유시간



주말 액티비티 - 시냇탈라



수빅 베이



급식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생활> 바탄페닌술라 주립대학의 글로벌 센터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3인1실에서 생활하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침대는 1인 1침대이고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중간에 에어컨이 시원해 지지 않아 문의드렸는데 금방 고쳐졌고, 추가로 선풍기도 주셨어요.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은 거의 하루이틀 안에 고쳐주시는 것 같습니다.</p> <p><수압> 샤워기 수압이 많이 낮아서 불편했어요. 그나마 샤워기가 아니라 밑으로 나오는 수도꼭지는 수압이 좋아서 바가지를 이용하여 샤워하였습니다. 샤워기 필터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p> <p><벌레> 많아요. 모기향, 모기 퇴치제 필수입니다. 다른방은 도마뱀도 나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도마뱀이 귀엽고 다른 벌레들도 잡아먹어줘서 그냥 같이 살았다고 해요.</p> <p><수업공간> 에어컨을 정말 세게 틀어줘서 추운 편이니까 긴팔, 두꺼운 옷 충분히 챙기세요! 감기에 걸린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약도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p>
수업	<p>먼저 첫날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레벨 테스트는 스피킹 테스트와 토익 스피킹 테스트를 보는데 따로 준비하실건 없어요! 괜히 따로 준비해서 테스트만 잘보고 나머지 수업을 어렵게 나가는것보다</p>

	<p>그냥 자신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자기 레벨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수업은 1:1 수업과 그룹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대일 수업때는 자신의 수준에 수업이 맞지 않으면 말씀드리면 조정해드립니다.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착하셔서 편하게 수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p> <p>저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액티비티는 getting to know, talent day, interculture, sport day, broom making을 하였습니다.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talent day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고 오후에는 장기자랑 타임을 가졌는데 이때 참여하시는게 좋아요! 준비시간이 짧긴 하지만 잘하는 데에 의의를 두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즐기면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여름시즌에 가시면 필리핀은 우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서 우산을 또 구매했어요. 가벼운 접이식 우산 가지고 가세요. 다행히 3주 내내 비가 오지는 않았고, 2주차부터는 짹짹했어요! 비가 올 때 한번에 많이 오고 안올때는 또 안와서 타이밍 잘 맞춰서 야외 활동 하는게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일단 센터 안은 시큐리티 분들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해주셔서 좋습니다.</p> <p>발랑가 시티도 다른 필리핀 지역보다는 안전한 편으로 알고 있어요.</p> <p>대형마트에 엄청 많은 수의 시큐리티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는 야외에 있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밤에는 위험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9시정도에 문을 닫기 때문에 길거리가 많이 어두워지고 트라이시클도 잘 안잡혀요!</p>
숙소	<p>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앞서 말했던대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p> <p>하지만 기숙사에는 주류반입 금지, 건물 내 흡연 금지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정도 룸청소를 해주시는데 이날은 캐리어같은거 펼쳐 놓지 말고 가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p>
식사	<p>기숙사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보통 아침과 점심은 기숙사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나가서 먹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정말...한식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게 잘 하십니다. 그리고 필리핀 음식은 대체로 짬편이라 물을 많이 드시길...</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기숙사 통학했습니다. 시내교통은 아마 트라이시클이라는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겁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가격흥정을 조금 하셔야 해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3만페소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8천페소	
생활용품(휴지, 샴푸 등등)	4천페소	
쇼핑(기념품 외)	8천페소	
기념품 및 선물	1만페소	

데이터	350페소	
합계	3만350페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생각보다 선생님들이랑 정이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 선물을 준비해가면 좋아요!
그 주변에서는 마땅한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짐은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무게가 늘어서 오기 때문에 룸메들랑 공유할 수 있는 것들(드라이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등등)은 무조건 공유하셔서 짐 줄이고, 최대한 다 버리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만 들고 오시는게 좋아요! 저는 스킨케어, 선크림, 헤어에센스 전부 조금만 남은 것들로 가져가서 다 쓰고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필리핀 마트나 몰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휴대용 화장지는 꼭꼭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현지 음식점의 물은 드시지 않길 권장드려요. 다들 심하게 물갈이를 해서....최대한 사드시거나 센터 안의 정수기 물을(이건 괜챤더라구요!) 드시는게 좋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합격하고 나서 저는 걱정이 더 앞섰어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가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든 됩니다. 저는 딱 2일차까지만 힘들었고 3일차부터는 뭔가 귀가 트인다는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구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게 된 건 아니지만 3일차부터는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착하고 친절하셔서 영어를 조금 못해도 당당하게 큰 소리로 하면 다 이해해주시고 교정도 해주시니까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getting to know</p>	<p>talent day 오전 부스체험</p>
	
<p>바비큐 파티 후 수영</p>	<p>talent day오후 장기자랑</p>
	
<p>sinagala 견학</p>	<p>interculture활동</p>